【유실】 경남 시도지정 합천 법연사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(1점) 유실 알림

1. 사건개요

종별	명칭	수량	규격(cm)	시대	유실 장소	유실 일자	소유자 (관리자)	연락처 (국가유산 사범단속팀)	비고
시도 유형문화 유산	**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**	1점 65장	전체 29.6 x 18.1cm 반곽 20.9 x 13.7cm	조선	법연종 본원 (부산)	미상	법연사	주간(사범단속팀) : 080-290-8000 야간(당직) : 042-481-4651	

- ㅇ 2019년 신고 유물을 관리하던 스님이 부산(법연종 본원)으로 이동하겠다는 진술 후 2024.5월 급작스럽게 입적하여 문화유산의 행방이 묘연
- ㅇ 경남 시도지정('14. 3. 20.) 문화유산으로, 1권 1책의 목판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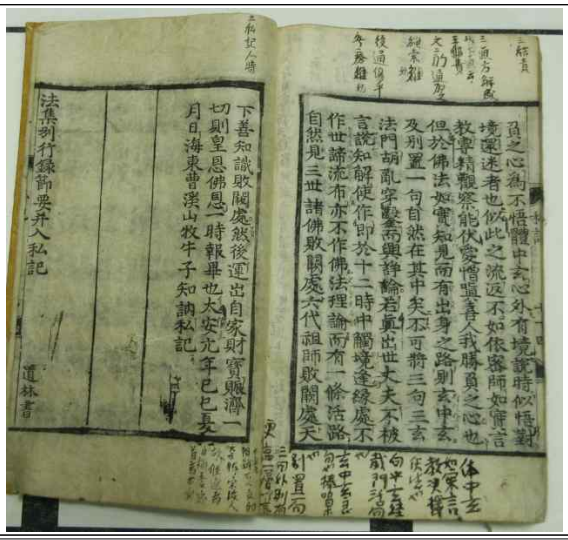
2. 도난(유실) 유물 사진(붙임)

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(도난·도굴)제보 : 국가유산청 사범단속팀(080-290-8000) ·경찰서(112) 및 시·군·구 문화유산담당

(붙임)

합천 법연사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(시도 유형문화유산)

(시대 1588(선조21년 / 규격 전체 29.6x18.1cm 반곽 20.9x13.7cm)



「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」는 보조국사(普照國師) 지눌(知訥: 1158-1210)이 입적하기 한해 전인 1209년에, 중국(中國) 화엄종(華嚴宗) 제5조(祖)인 규봉종밀(圭峯宗密: 780-841)이 엮은 「법집별행록(法集別行錄)」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절요(節要)하고 지눌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사기(私記)를 더하여 편집한 책이다.

이 책은 1권 1책의 목판본(木板本)으로, 표지 서명은 '별행록(別行錄)'이며, 권수제(卷首題)는 '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(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)'로 확인된다. 판심제(版心題)는 '사기(私記)'의 약서명(略書名)이 확인된다. 제책(製冊)의 형태는 오침안선장본(五針眼線裝本)으로 되어 있다. 판식(版式)은 사주단변(四周單變)에, 반곽(半郭)의 크기는 세로 20.9㎝에 가로 13.7㎝이며, 계선이 없고(無界), 9행(行) 19자(字)로 배열되어 있다. 판심(版心)은 상하백구(上下白口)에 상하내향흑어미(上下內向黑魚尾)이며, 종이의 지질(紙質)은 닥종이(楮紙)로 되어있다.

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(도난·도굴)제보 : 국가유산청 사범단속팀(080-290-8000) · 경찰서(112) 및 시군구 문화유산담당